제주 관련 주요 법안 국회 심의 '지지부진'

행정안전위원회 계류됐던 '도민이동권' 심의 안돼
제주과기원 설립·JDC 헬스케어타운 정상화도 발목

제주 현안을 담은 주요 법안들의 국회 심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연내 입법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현재 제주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제주국제과학기술원(JIST·제주과기원) 설립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주4·3과 관련한 법안 등 여러 건이 계류 중이다.

지난 6월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발의한 도민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육지 국내선 항공노선을 도민 생활필수교통망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제주도의 재정지원 책무를 규정해 고유가·재난 등 비상상황에서도 제주도민의 항공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다. 하지만 지난 7월 1일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 상정된 이후 4개월째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항공사 경영 여건 변화 등으로 제주노선 공급석 감소가 반복되면서 제주 도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개선을 위해 발의됐다.

제주도민에게 필수 교통 수단인 항공편 이용과 관련한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바 있다. 당시 초선 의원이던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제주도민 등 섬 주민들에게 항공운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제주국제과학기술원(JIST·제주과기원) 설립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정부 각 부처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뒤 논의가 멈춘 상태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발의돼 지난 8월 행안위에 상정된 뒤 법안소위로 넘겨졌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오랜 현안인 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상임위에서 발목이 잡혀있다. 지난해 8월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행안위 계류 중이며 JDC는 사업 정상화를 위한 추가 법안 발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 법안이 다수 계류 중인 행안위에는 제주 국회의원이 없어 향후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초선인 문대림 의원과 김성범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한규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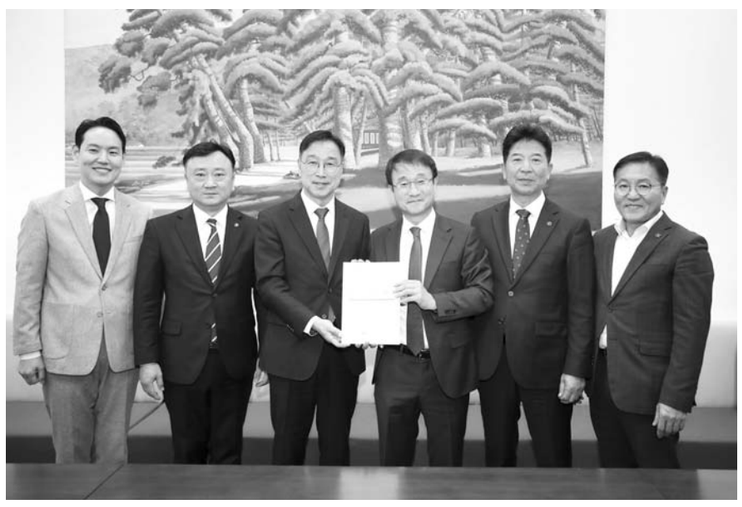
국회 예산 심의 앞둬 국비 증액·확보 '사활'

제주도-의회 국비확보단
민주당·주요 부처 방문
AX실증사업 33억원 등
10개 사업 국비 지원 건의

본격적인 예산 국회가 시작되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 등을 면담하는 등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위성곤 지사와 송영훈 도의장, 하성용 도의회 운영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공동국비확보단'을 구성하고 지난 6일 국회를 찾아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공동 국비확보단은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및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한규·김성범 국회의원,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등을 만나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면담하는 제주도 공동 국비확보단. 제주도의회 제공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10개 사업은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AX) 실증사업(33억원)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 연구개발(R&D)(500억원) ▷거리등가제 시범사업 연구용역(6억원) ▷한국형 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K-관광 아카데미, 5억원) ▷제주노선 항공좌석 공급 확대방안 연구(5억원)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및 제주4·3평화공원 시설물 개선(10억원) ▷제2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30억원) ▷제4차 유엔해양총회(UNOC4) 사전행사(10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추자해상풍력 사업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과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도 건의했다.

추자해상풍력 사업은 약 2기가와트(GW) 규모로 2035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주권 해상풍력 보급 목표 물량을 반영하고, 사업 재추진을 위한 전력계통 연계방안을 우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도내 신규 등록차량의 100%를 전기차로 보급한다는 목표에 맞춰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취득세 감면 등 국가 감면 제도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과 제주처럼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국비 차등 지원 등 지방재정 부담 완화 대책을 요청했다.

또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는 제주의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정부 예산안 대비 300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해 개념 검증(PoC) 사업은 꼭 필요하다"며 "제주가 충남, 강원과 함께 지역특화 인공지능(AI) 기반 자립·안전 최적화 통합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국회의장-전국 시도의회의장 간담회

송영훈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위원 정수 확대"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과 정책연구위원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송 의장은 지난 6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의장·전국 시도의회의장 간담회'에서 조 국회의장에게 이같이 건의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장협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남종섭 의장협의 회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해 각 의회 주요 현안과 국회·지방의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 국회의장은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지방자치 발전의 중심"이라며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법 조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 협조를 구하고, 국회와 지방의회 간 입법·정책·연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송영훈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법령 정비도 병행돼야 한다며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위원 정수 제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의원 입법과 정책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연구위원 정수는 최대 21명으로 제한된다.


지난 6일 국회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 간담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왼쪽)과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도의회 제공

송 의장은 현행 제주특별법 규정으론 지역 여건과 변화하는 의정수요에 맞춰 정책 지원 체계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연구위원 정수를 도의회의원 정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발의된 상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하원테크노캠퍼스 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해야"

시민단체, 도의회에 촉구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서귀포시 하원동 옛 탐라대학교 부지(30만 여㎡)를 우주산업 거점으로 조성하는 '하원테크노캠퍼스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하라고 제주도의회에 촉구했다.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은 지난 6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부지는 중산간 지하수특별관리구역으로 애초 산업단지를 조성해서는 안 되는 곳이지만 제주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기도 전 사업단지 내에 주축기업인 한화시스템의 위성공장인 우주센터가 착공되도록 허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액체·고체 엔진 연소시험에서 사용되는 연료와 산화제는 주변 지하수, 토양에 심각한 오염은 물론 지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고 시험동은 폭발·화재 위험이 크다"며 "또 지하수특별관리구역에 온실가스를 증폭시키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적 요인 외에도 '우주산업 전초기지'로서 제주해군기지 등과 연동하며 제주의 군사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전 공사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소정기자

한경면연합향우회
"한마음 잔치" 개최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한경면연합향우회에서 준비한 "한마음 잔치" 행사가 개최됩니다!
한경면 출신 제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 고향의 정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거운 추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참석 부탁드립니다.

아 래

일시 2026년 11월 15일(일) 오전 10시
장소 용담 레포츠공원

ㅇ 행사 내용: 개회식, 다양한 게임, 소통의 시간, 가수 공연 및 노래 자랑, 경품 추첨
ㅇ 연 락 처: 회장 010-7747-4077

한경면연합향우회 회장 오태종

각 마을 향우회 회장
김순화(조수1리) 조용철(낙천) 김치준(두모)
이승언(산양) 김태완(신창) 양안식(조수2리)
좌경석(저지) 김기태(용당) 홍영식(용수)
문영진(청수) 김동국(한원) 김희종(고산)

삼육두유
우리가족 건강음료,
삼육두유
설탕을 넣지 않고 고소하고 부드러운 콩 그대로의 맛을 살린 절대 모방할수 없는 맛



삼육식품 www.sahmyook.co.kr
제주도총판 대표 윤 봉실
064)757-1416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큘고리!



쉽게 높이조절되는 큘고리 큘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큘고리'가 있습니다!

큘고리 작업세트 구성



큘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재구입비 회수가능
2. 큘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큘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큘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큘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